

반도체에 기댄 신고가 행진... 쓸림·빚투 불안 커졌다

② 상승장 속 시장 양극화

“원래 코스피 7000, SK하이닉스 160만원이면 일부 차익실현하려 했는데 막상 50만전자, 300만닉스 얘기가 나오니 팔기는커녕 더 사야 하나 싶어요.” 40대 개인투자자 황모씨는 최근 주식 계좌를 볼 때마다 반도체 대장주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더 못산 ‘FOMO’(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를 느낀다고 했다. 평소 주식을 하지 않던 60대 김모씨도 “예금 만기가 한 달도 안 남았지만 3%대 이자 받고 기다리기에 시장이 너무 빨리 움직인다”며 중도 해지를 고민 중이다.

7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1.43% 상승한 7490.05에 마감했다. 이제껏 가본 적 없는 코스피 7400이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지수만 풍년’이다. 반도체 등 특정 업종에 대한 과도한 쓸림으로 국내 증시의 구조적 취약성은 더 심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상 최고치에도 하락 종목 우세 반도체 대형주가 지수 상승 견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 비중 45% 내수·중소형주 소외 속 K자형 장세 보유 종목 따라 수익률 양극화

시중 멍청돈도 반도체에 쏠려있다.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의 3배를 넘는 ‘K자형 증시’ 형태를 보이자 뒤늦게 증시에 뛰어들 투자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반도체 나홀로 이끄는 증시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코스피 상승률은 73.80%로 주요 20개국(G20) 증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튀르키예에 BIST100(30.26%), 일본 닛케이225(21.22%), 브라질 보베스파(16.91%)를 크게 웃돌았다. 같은 기간 미국 S&P500과 나스닥 상승률도 각각 7.59%, 11.17%에 그쳤다.

상승의 중심에는 단연 반도체가 있다. 7일 오후 2시20분 기준 코스피 시가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7000p를 돌파한 지난 6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내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축하행사에 참석한 한 관계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 비중은 25.80%, SK하이닉스는 19.21%로 두 종목만 합쳐 45%를 넘었다. SK스퀘어까지 포함하면 시총 상위 3개 종목을 비중은 47%대에 달한다. 이날 지수 상승 기여도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이었다. 삼성전자의 지수 영향은 24.9705포인트, SK하이닉스는 39.1382포인트로 집계됐다. 두 종목의 지수 영향만 64포인트를 넘는다.

사실상 ‘반도체 주가=코스피’란 분석이 나올 정도다. 역대급 불장에도 내수주·중소형주가 소외되는 ‘K자형 양극화’가 굳어지고 있다. 이영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시장이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하락 종목이 더 많을 정도로 특정 종목 쓸림이 심한 상황”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유했느냐에 따라 투자자 수익률 편차도 커지고 있어 시장이 극단적으로 양극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들이 느끼는 실질 체감지수와 지수 흐름 간 괴리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만의 얘기는 아니지만, 쓸림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미국 S&P 500에서 AI 관련 기업 비율은 약 45%인데, 이는 챗GPT가 출시된 2022년 말(약 25%)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오른 수준이다. 국내만도 반도체 기업 TSMC가 전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5%쯤

이다. 일본은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인 어드밴티스트와 컴퓨터 칩 장비 제조업체인 도쿄일렉트론을 합친 비율이 전체 시가총액의 20%를 차지한다.

김동영 삼성증권 수석 연구위원은 “코스피 업종별로 온도 차가 뚜렷하다”며 “반도체 업종이 AI(인공지능) 수요 폭발과 역대급 실적으로 반등장을 주도했지만 그 외 업종들은 주가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라고 했다.

AI에 투자한 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아 ‘AI 거품론’이 확산될 경우 시장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토니파스칼렐로 골드만삭스 헤지펀드 부문 책임자는 “최근 반도체 주요 종목이 급등하는 모습은 지난 2000년 닷컴 버블 정점 당시 이후 처음 보는 수준”이라며 “급등 후 급락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개미들의 빚투도 반도체에 쏠려있다. 삼성전자의 신용거래용자 잔액은 지난 6일 기준 3조2140억원으로, 올해 첫 거래일인 1월 2일(1조7197억원) 대비 약 87% 증가했다. SK하이닉스 역시 같은 기간 신용용자 잔액이 9818억원에서 2조2690억원으로 약 1조2872억원 늘어나며 131% 급증했다. 반도체 랠리 속 개인 투자자들의 ‘빚투’도 빠르게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는 물론 자동차·조선·방산·로봇 같은 대형 수출주로의 ‘쓸림’이 심한 만큼 대외 변수에 대한 취약성도 따라 커졌다.

박연주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 증시 상승에서는 반도체가 더 핵심적인 요인”이라며 “AI 산업의 직접적인 수혜가 반도체에서 나타나고 있고, 정부 정책이나 대외 환경은 자금 유입을 가속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 및 국장’ 체질 개선 나서야

자본시장은 실물경제와 금융시스템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다. 가계·기관투자자의 자금을 기업에 연결해 자본이 생산성 높은 부문으로 옮겨갈 수 있게 한다. 유동성을 제공해 투자리스크와 자본조달 비용을 낮추고, 경영 감시 기능이 작동하도록 해 시장 기반의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자본시장에 활력이 도는 건 좋은 신호다.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경제 전반이 건강해지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현실은 판판이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한국 주식 자산 효과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계는 주식 투자로 1만원의 수익을 내면 이 가운데 약 130원만 소비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320원, 일본은 220원, 독일은 380원이 소비로 이어진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주식 수익이 소비보다 부동산 매입으로 흘러가는 구조도 확인됐다. 한은은 무주택 가계의 경우 주식 이득의 70%가 부동산으로 이동한다고 분석했다. 주식시장 상승이 내수 소비 확대와 기업 매출 증

가로 이어지는 전통적 자산효과가 한국에서 제한적이라는 뜻이다. 전체 주식 자산의 73.2%가 상위 20%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자산효과를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미 소비 여력이 큰 고소득·고자산층에 주식 자산이 몰려 있어 주가 상승분이 소비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축포가 화려할수록 불안의 그림자도 짙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림자는 ‘다음’이다. 반도체 다음으로 세계 시장을 주도할 산업이 없다는 얘기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1분기 한국의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38% 늘어난 2199억달러를 기록했는데 이 중 약 35%가 반도체였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145%였고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은 12% 늘었다.

대장주 신용잔고 가파른 증가 AI 거품론 확산 땀 급락 가능성 주가 상승분 소비 연결은 제한 자본시장과 실물경기 괴리 확대 차세대 성장 산업 부재 부담

1분기 경제성장률(실질, 계절 조정)에서 확인된다. 전분기 대비 1.7%를 기록했다. 1분기 성장의 대부분은 반도체 등 제조업과 수출이 이끌었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분 중 반도체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5%로 잠정 집계됐다”며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의 1분기 실적이 예상을 크게 뛰어넘으면서 성장률도 2월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더 멀리, 더 높이 뛰려면 그림자를 지워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온도 차이, 반도체 쓸림 현상이 노출하고 있는 K자형 성장도 극복해야할 과제로 꼽힌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metro



고양특례시의회
Goyang Special City Council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늘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소통과 화합, 협치의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www.goyangcouncil.go.kr